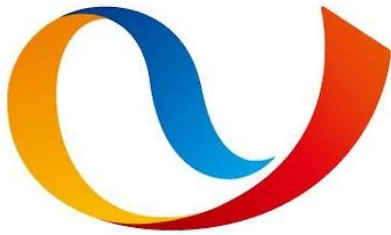


# 한의학연 "꽃무릇 추출물, 항코로나바이러스 효능 우월"

송고시간 | 2022-01-27 11:06



## 한국한의학연구원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제공]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7일 한약재로 쓰이는 꽃무릇(석산·石蒜)에서 추출한 라이코린(Lycorine)이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보다 항바이러스 효능이 우월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꽃무릇은 돌 틈에서 나오는 마늘종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석산화'(石蒜花)로 불린다.

백합목 수선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숲속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

본초강목에 수록된 한약재로, 이뇨 작용을 돕고 해독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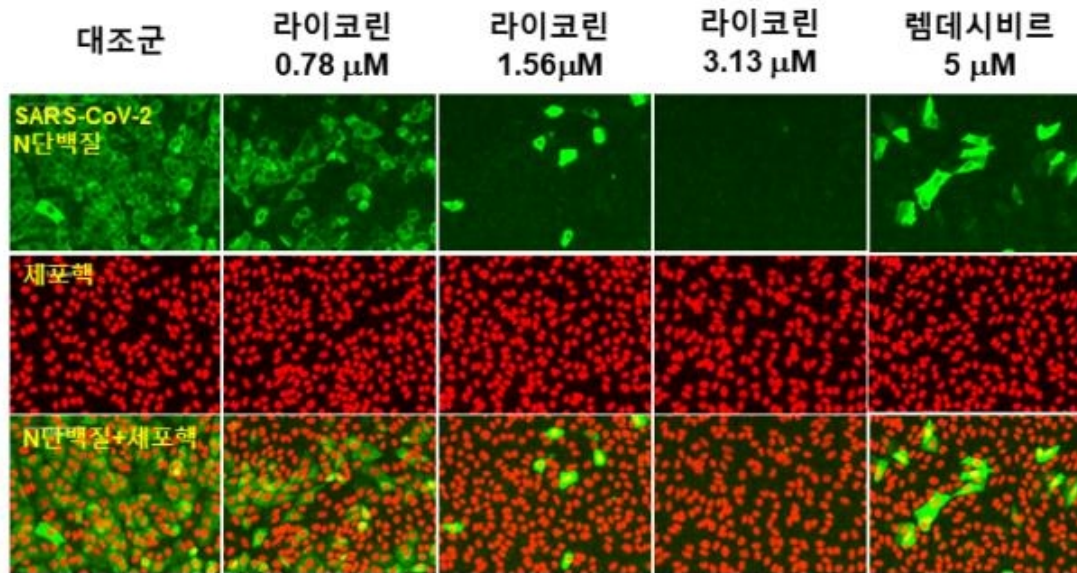
한의학연 감염질환 연구팀은 라이코린의 코로나바이러스 중합효소 억제 효력을 측정했다.

중합효소는 RNA와 DNA를 구성하는 핵산의 복제를 유도하는 효소로,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가 이를 억제하는 작용 기전을 가진 것으로 보고됐다.

라이코린은 메르스 중합효소 대상 실험에서 렘데시비르보다 약 4.5배 차이를 보였고, 사스 중합효소 대상 실험에서는 약 1.8배 더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

이번 연구에는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세포 기반 코로나바이러스 중합효소 저해제 고효율 스크리닝 플랫폼이 사용됐다.

권선오 박사는 "비임상 효력시험 수준까지 연구가 진행된 상태로 향후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독성시험 등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며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치료와 관련해 한의학 임상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렘데시비르와 비교한 라이코린의 사스 감염억제 효능

[한국한의학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jun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27 11:06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